

## ■ 한국농어촌공사 내년 전남지역 주요 사업

# 21개 저수지 둑높여 물그릇 확대...영산강변 '국민쉼터'로

인류문명은 흥하, 나일강 등 강에서 비롯됐다. 농경(農耕)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기름과 흥수 등을 겪으며 물을 잘 이용하고자 하는 인류의 '저수지'(治水)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돼 왔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우리나라 식량자원을 책임지고 있는 100년 역사의 공기업이다. 올해로 설립 103년째를 맞은 공사는 그동안 대단위 종합개발과 간척사업,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업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 왔다. 내년 추진되는 공사의 사업계획을 전남지역 중심으로 살펴본다.

◇21개소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박차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원)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내 저수지 둑높이기 대상자는 ▲영산강 수계 14개소 ▲섬진강 수계 4개소 ▲대강 유역의 3개소 등 총 21개소로 모두 696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영산강 수계에는 광주호·장성호·나주호·담양호 등 4대호가 포함돼 있다.

이 사업은 저수지의 물그릇을 키워 담수량을 높이고 흥수조절을 쉽게 해 재해 예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저수량보다 6300만t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518억원을 들여 당초 제방높이를 기존 25.5m에서 27.6m로 2.1m를 높여 저수량을 588만8000t 추가로 확보하고, 현재 사전 방류 기능이 없는 여수토(물넓이 시설) 방식대신 수문(가로 7.5m×세로 7m 크기) 4개와 취수탑(높이 27m)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사문화권의 문화유산과 생태 환경 훼손을 우려한 환경단체들의 반발에 따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제방높이를 27.1m로 낮췄다. 또 사업 완료후 주민들이 참

여하는 '수위관리 협의회'를 결성해 갈수 기 관리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남지역본부는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내년말까지 완료하고, 4대강 유역밖인 영광군 백수읍을 길동저수지 등 3개소는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담수량 6800만t 추가 확보 흥수 조절

## 영산강 하구둑 배수갑문·연락수로 확장

## 자연재해 줄이고 어도 설치 관광명소화

◇영산강의 미래를 준비한다 =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은 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에 대비하기 위한 대표적인 재해예방 사업이다.

영산강사업단(단장 조규정)이 추진하는 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은 영산강에 집중되는 흥수를 바다로 신속히 배출하기 위해 영산강과 영암호의 배수갑문과 연락수로를 확장한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친환경 어도(魚道)와 랜드마크 타워, 국내최초이

자 동양 최대의 섹터 게이트(sector gate·부채풀로 여는 탭 수문) 제수문 등을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1공구 사업은 영산강 흥수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해 사업비 2221억원을 들여 기존 240m 길이의 배수갑문을 48m×13.6m 크기의 수문 5개를 추가 설치해 480m로 넓히는 것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흥수배체량은 초당 5260m<sup>3</sup>로 높아진다.

또한 기존 '통선분식 어도' 대신 응어와 범장어 치어 등 회유성 어류를 위한 '자연형 수로식 어도'(27ha)가 조성되며, 영산호 랜드마크로 58m 높이의 전망대와 관찰데크 등이 세워진다.

이와 함께 영암호 배수갑문을 확장(80→410m)하는 2공구 사업과 영암호~영산호간 연락수로를 확장(15~140m)하는 3공구 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공사는 내년 사업이 완료되면 영산강의 흥수처리 능력이 48% 증가돼 침수면적 개선효과가 4020ha에 달하고,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목포와 영암, 해남 등 인근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수변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남지역본부는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고령 은퇴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돋는 '농지은행 사업'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안정화 ▲수자원이 효율화 제고 ▲지하수 관리사업 ▲지류·지천 정비 사업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 생산기반 시설 정비·보강 ▲명품마을 조성을 위한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전남지역본부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공사의 보유시설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영암과 진도에 태양광발전소 3개소(4000kw)를 설치했으며, 담양과 장성 탐의 소수력발전소 2개소(2495kw)는 상업발전에 들어갔다. 또 보성지사와 영광지사는 신재생에너지를 반영한 '녹색(green) 사옥'으로 신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효시는 1906년 대한제국 탁지부의 수리조합 조례 공포 이후 같은 해 12월 8일 전북 옥구군에 처음 설립된 수리조합(옥구 서부 수리조합)이다.

농촌근대화가 본격 추진된 1970년대에 토지개량조합 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가 합병, '농업진흥공사'가 탄생했고, 외국 차관을 들여와 대단위 농업종합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어 지난 2000년 1월 정부는 효율적인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농어촌진흥공사(농업진흥공사 1990년 개칭),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 연합회를 합쳐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했다. 2005년 12월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을 바꿨으며, 2008년 12월 농촌과 어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 농어촌공 박재순 사장



"J프로젝트 부지 공방 조속 매듭  
나주 사옥 이전 3년내 마무리"

주장 부지(185ha, 56만평)의 경우, 지난 10월 20일 부지대금 287억원(평당 5만1240원)을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완납받아 부지의 양도·양수가 끝났다. 하지만, 구성지구 부지(1594ha, 482만평)는 아직 양도·양수가 완료되지 않았다. 구성지구 부지의 감정평가问题是 현재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타당성 조사와 법원에서 민사조정 중으로 조속히 양도·양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농어촌공사가 식량 안보와 관련 J프로젝트 예정지 인의 간척지 양수양도를 미루고 있는데 이 지역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가격에 양도 하려 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외 지구인 부동지구 기업도시 부지의 추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검증 중이므로 이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양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5개 공공기관 가운데 하나인데 이전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신사옥 부지는 이미 매입했으며 총 부지 면적이 11만5466㎡로 지상 18층, 지하 1층 건물로 이달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년 안으로 공사를 발주해 내년 초에는 신사옥 건립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사옥 준공이 완료되는 2014년 하반기에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촌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민들 계획인가.

▲고졸자 채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또 정책적으로 터키방식 공사 발주에서 지역·중소업체 참여방안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 중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내년 4월 까지는 농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일제 정비를 하려고 한다. 비영농기 농업인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영산강 사업단은 광주호 등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과 영산강 하구둑개선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광주호 조감도(왼쪽)와 영산강하구둑 1공구 배수갑문 투시도.



## 족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 150여가지의 족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족석 프리미엄뷔페!!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 “웨딩, 객실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의 대한민 행사”



새롭게 준비한 가을웨딩  
총 100가지 뷔페

객실 500,000원 및  
조식뷔페(30종) 무료제공

각종연회행사 할인!  
(돌잔치, 회갑연, 송연모임, 기업행사)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주차장을  
오직 호텔예술의전당 뿐입니다!

뷔페식비는 대형예식장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기울뷔페는 총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침치와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하객 400인 이상 보증시 원목침대 및 협탁을 사은품  
으로 드립니다.

성수기 혼잡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362-0011, 600-9999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포츠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